

## 천천히, 지속적으로 글을 알아간 이야기

● ● ●  
계 현 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글을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것은 대학 1학년 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꽤 시간이 지나서야 글 쓸 때의 '책임감'을 알게 되었고 지난 학기에 1대1 글쓰기 상담을 받은 후부터 비로소 글의 개요를 짜고, 쓴 글을 다듬게 되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는 글을 즐겨 쓰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생각거리를 글로써 표현하기 시작했다. 타자로 글을 쓰면 내 생각의 속도를 활자가 따라잡을 수 있었기에 생각하는 동시에 글이 생겼다. 글은 사유의 장난을 즐기는 나 자신을 무척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한창 블로그에 빠졌던 시절, 글은 그야말로 내 호흡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밥 먹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쓰기를 글쓰기라 인식하지 않고 마치 수다 떠는 것처럼 써왔다. 글의 가장 기초적인 문법, 전체적인 짜임새는 당연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문단의 의미 따위도 전혀 의식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주제도 필요 없었다. 오히려 가장 처음에 쓴 표현이 그 자체로 나의 사유를 가장 생생하게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고치는 것을 꺼려했고 연상이 연상을 불러오는 사유의 흐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글을 즐기치게 쓰다보면, 수다를 가득 떨고 난 후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것처럼, 내 글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주제가 탄생하곤 했다.

긴 문장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흡, 두서없는 이음새,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대로 내 글의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글쓰기는 대학 리포트작성에는 결코 통하지 않았다. 쓸 내용과 '내 생각'은 언제나 충

분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는 ‘생각’을 글로 써낸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종이에 옮긴 것은 리포트 주제에 대한 나의 ‘느낌’에 불과했다. 제대로 구조를 갖춘 논리정연한 글을 써내는 작업은 치밀한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너무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리포트에 대한 평가가 들쭉날쭉인데다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나는 계속 내 생각을 ‘말하기’에만 집중했다. 피드백이 있었다면 나는 정작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없었고 내 글에 매겨진 점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에게 글이란 그저 표현수단이었다.

그러던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쓴 지 2년이 지나자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글을 쓰는 빈도가 확 줄었고 정말로 글이 쓰고 싶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졌다. 이런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다 보니 함부로 뱉어버린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읽는 사람, 쓰는 사람을 모두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끔 달콤한 글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도 목격했다. 또한 내가 의도했던 바가 항상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읽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글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곤 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끼리 말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던 내용이 글이 되어 버리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에 가해지는 비판을 ‘이건 그냥 내 생각을 몇 마디 지껄인 것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글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그때서야 어째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영어로는 ‘publish’라고 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글 자체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책임감 있고 진실된 글을 쓰고 싶었다. 좋은 글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변화의 필요를 느꼈다. 그러던 와중 조교로부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가요?’라는 최악의 코멘트를 받았다. 이를 보고 예전에는 그 어떠한 악평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던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설

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쓴 글이 엉터리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무슨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1대1 글쓰기 상담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글쓰기 교실의 상담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생각이 변했다. 나는 원고지 5장 내외의 짧은 글도 개요가 있고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단이 무엇인지 배웠다. 글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빛을 발하게 된다는 즐거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집중상담을 통해 선생님은 전반적인 나의 글쓰기 스타일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 나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만 했다. 그동안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왔나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

글은 내 말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글은 동시에 읽는 사람 모두의 글이었다. 글은 글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있었고 글을 써낸 이후에는 내 손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글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이해가 간다. 나는 우연하게 블로그를 접해 ‘마음대로’ 글쓰기를 즐겼고 더디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글에 대해 알아갔다. 아마도 글 자체가 내 관심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글 자체의 생명력을 인정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겼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무언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